

# 온전히 남은 그 섬의 매력

서남해안 끝자락에 자리 잡은 신안은 늘 궁금하면서도 대전에 살고 있는 내게는 멀어서 쉽사리 가기 쉽지 않은 곳이었다. 나흘간의 신안 여행은 너무도 짧았지만 1004개의 섬 신안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두고두고 흠모하는 대상으로, 이 계절 앓게 될 것만 같다.

특히 병풍도, 퍼플섬처럼 각 섬에 지붕색과 꽃색으로 특색을 주는 등 각 섬별 특징을 만든 점이 인상 깊었다. 신안에 편견이 있는 사람들에게 신안 여행을 적극 추천해주고 싶다. 지문처럼 온전히 남은 신안의 매력을 느끼며 다른 계절의 신안을, 다른 이들과 함께 만나보기를 기약해 본다.



병풍도

## 임재운

섬 살이 : '22. 10. 5. ~ 10. 8.

Instagram : <https://www.instagram.com/hisiworld/>



병풍도



반월박지도(퍼플섬)

# 섬, 살고 싶은 섬 두미도, 돌아가고 싶은 섬 두미도

## 김해영

섬 살이 : '22. 8. 16. ~ 9. 14.

블로그 : <https://blog.naver.com/noom0630>



두미도항

##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법을 알다

통영 두미도 동외섬을 보고 있으니 두미도 한 달 살기가 생각난다. 여름옷과 캠핑 장비를 바리바리 싸고 엄청나게 쏟아지던 여름 장맛비를 뚫고 달려 떠났던 두미도 여행. 아무도 없는 여객터미널에서 줄을 섰던 그때, 결항으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렸던 그때.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섬의 사람들과 반대로 육지에서 정해진 일과에 익숙해져 버린 나를 발견했던 그때가 생각난다.

섬의 첫 이미지는 투박한 얼굴과 손, 기차화통을 삶아먹은 듯한 목청, 낯선 섬 주민들이었지만 한 달 동안 매일을 마주하니 어느덧 한 가족보다 더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배 엔진소리 때문에 커진 목청과 뱃일로 거칠어진 손과 얼굴. 이유를 알고 나니 평균나이 60세 이상의 섬 주민 분들이 힘들게 사시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 같아 더 살갑게만 느껴졌다.

## 다시 찾은 두미도를 기억하며

‘섬에 살으리랴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3주도 안 되어 나는 자연스레 두미도를 다시 찾게 되었다. 한 달을 살고 다시 찾은 두미도는 너무도 반가웠다. 살갑게 맞아주시는 펜션 사장님과 주민 분들이 너무 그리웠고 다시 찾은 두미도의 맑은 바다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하루는 고운마을 할머니의 고구마 밭에 수확을 도우러 갔다. 기계가 들어올 수 없는 경사진 섬의 척박한 농경지여서 낫과 호미만으로 고구마를 캐야 했다. 자발적인 나의 의지로 시작했지만 새벽부터 시작한 일은 저녁 노을을 보면서 끝이 났고 마음 넉넉하신 고운마을 할머니는 고구마를 2박스나 선물로 주셨다. 그때 얻어온 고구마를 먹으면서 허리가 아프던 그 순간과 아름다운 노을이 떠올랐고 앞으로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도시에서 복직대는 삶을 살다 우연한 기회로 찾은 두미도는 나에게 큰 추억으로 남았다. 서울을 떠나 먼 타지에서 삶의 삶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짧지 않은 한 달의 시간은 그들의 삶을 느끼기에 충분했고 나에게 귀중한 경험이 되었다.

나는 또 섬을 찾을 것 같다.